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 에서 제작지원합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내며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 수행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진로탐색 과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5개 지역에서 지역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던 내일상상은 남원 지리산의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세워주는 강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는 사람책 활동으로 이루어진 '상상학교', 일·노동·직업·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며 지역 안팎을 탐색하고 지역의 일감을 수행하는 '내일생각워크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연결한 팀 프로젝트 '내일찾기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같은 지역에서 3년 동안 연속해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12명의 인적자원을 만났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청소년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란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로교육기관보다도 가깝게 마주하는 이들이 마을 청년들, 어른들, 또래들이기 때문입니다.



##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지역자원조사 자료집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희망제작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남원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춘향골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결이 지역 현장에서 수행 주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내에서 진행한 지역자원조사 자료집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일과 삶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가슴 찡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12명의 지역자원들은 직업 너머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보여줍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내일생각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지역자원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직접 인터뷰해보는 '찾아가는 사람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자원자료집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는 지금 현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의 확산을 위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올해 12명의 인적자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공간, 단체,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어나고, 이것이 지역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났던 모든 분들이 꽃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의 삶이 꽃인 것처럼

아이들이 또 '사람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조창숙

## 산내

- 6 음식문화운동가 고은정
- 11 사람에 관심 많고,  
내가 만들어가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29살 뿌나
- 15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승현

## 산청

- 19 기존 있던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Value Putter(가치부여자) 김한범

## 운봉

- 23 시골에서의 여유와 자유가 좋다. 이일형
- 27 지리산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정영학

## 아영

- 30 오늘도 행복한 방송댄스샘 박명희입니다.
- 33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윤석우입니다.
- 36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전제비입니다.
- 40 동그란 원처럼 살아가는 아영의 원불교 청계교당 최광현 교무님
- 43 호기심과 궁금증이 원동력인 전업작가 겸 두 아이의 엄마 황애리

## 함양

- 47 빈둥거리며 살지 않는 영원한 '빈둥'카페의 마담 이은진

## 음식문화운동가 고은정



.....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실패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

###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음식으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어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파는 사람은 먹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파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의 질은 나빠지고 음식의 맛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배려하는 음식, 건강한 음식, 지구를 살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자고 권하면서 어떤 때는 음식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같이 만들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할 때 나도 그들처럼 행복해지더군요. 그런데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발현된 것 같아요. 지리산에 내려와 살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내 몸 들여다보기' 공부를 했어요. 내 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음식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더 알게 된 것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 싸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양념을 쓴다는 것이었어요. 주인공 재료는 유하고 부드러워요. 조금씩 들어가는 양념은 개성이 강하고 성질이 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게 들어갔지만 성질이 센 그것이 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완성된 음식만 보지 않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피다 보니 장도 담그게 되고, 밥도 직접 해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지요.

##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어려움은?

맛있게 하는 음식 강의가 아니라 내가 음식을 왜 하는지,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니 주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변한 건 내 자신의 삶이구요.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환경에 대한 생각, 첨가물이 많은 음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니 약을 한 주먹씩 먹기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껏 오로지 음식에만 의존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먹는 사람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요.

음식을 만드는 곳은 위험한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자신은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음식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해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느라 자신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생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어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선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잘못해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으로 부딪쳐 자신의 꿈에 정면으로 마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더 잘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주변에서 좋은 일이라고 부추기거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기도 쉽고 실패의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기도 쉽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놀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거든요.

## 청소년기의 아쉬움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큰 아쉬움은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혼내도 내 할 말은 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서 칭찬 받는 게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칭찬받는 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어요. 사범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원서를 써서 원치 않는 대학생활을 한 것이 가장 우울했고, 불행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시대였죠.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때 나를 잡아준 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야학선생님이 되어준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데 못한 분들이 검정고시를 보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철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하기 싫은 것을 해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에서 아이 낳고 키워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너무 예쁘고 대견하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제일 잘 한 일인 것 같아요. 자식은 이유가 있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 내 삶의 만족도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90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여러 조건으로 어려울 때 안타깝고 아쉽죠.

### 진로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이라면 뒤에 오는 누군가는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실패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고 그게 아니면 다른 길로 가도 돼요. 나도 40대 중반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은?

어른들이 웃으면서 바라봐 주는 마을이요. 청소년들이 실패하거나 잘못해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먼저 조금해서 잘 지켜보지 못하고 정형화된 삶의 태도를 원하죠. 지금 잘한다고 나중에도 잘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못한다 해도 나중에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웃으면서 바라봐주는 마을이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 우리 마을 청소년들과 나눌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기 끼니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밥 짓기,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를 배움으로써 어른들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식생활 독립을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온전히 자기 힘으로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함께 해 줄 수 있어요. 같이 밥 해먹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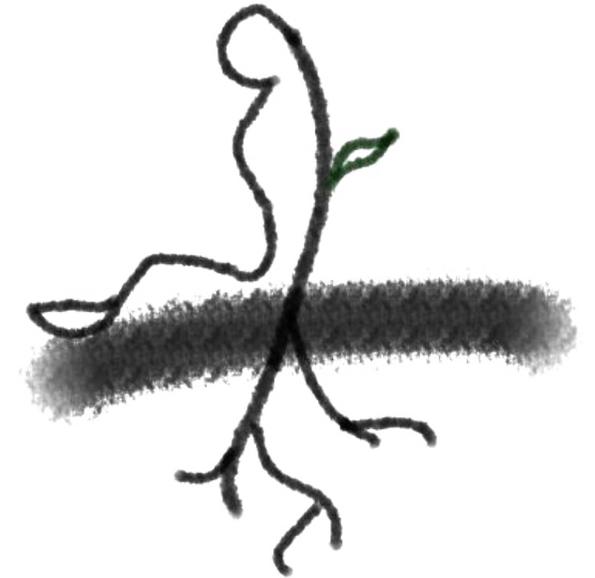
#### 맛있는 부엌이란?

북쪽 지리산의 실상사 인근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위안을 얻고 싶은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제철 음식학교, 시의적절약선음식학교, 우리장학교, 식생활교육강사양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교육, 식생활교육, 식당이나 사업체 혹은 향토음식 등의 메뉴개발에 더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마을밥상모임 등을 하면서 오로지 음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사람에 관심 많고, 내가 만들어가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스물아홉살

뿌나

" 어딜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방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



###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안대학인 인드라망 생명평화대학에서 청년들이랑 집짓기, 농사하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내에 있는 목금토 공방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재미나게 안정적으로 잘 배우고 살고 싶어서 시골에 왔어요. 친구들과 재미난 작당을 통해 자아실현을 해 보고 싶었어요.

### 지리산으로 오게 된 이유는?

잘 배우면서 중심을 갖고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명도 뿌나(뿌리내린 나무)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부모님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책에서 읽은 거랑, 사람들이 사는 삶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나를 파괴시키는 것 같았어요. 실상사에 자원봉사 와서 한달을 지냈고, 사람을 볼 때 배경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게 되고 마음이 끌렸어요. 다시 도시로 갔다가 한달 시골살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는데 '여기라면 배울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게 되었어요.

### 진로란 무엇일까요?

진로는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진로인 것 같아요.

### 해왔던 일들과 진로의 전환점은?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사회문제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많이 갔어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살도 많이 한다는 기사도 접하고, 성소수자 친구들이 왕따를 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여성단체에서 상담 일을 했는데 사건은 해결되는데, 피해자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들면서 '내가 인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실상사에 오게 되었어요.

### 작은집 짓기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인데, 생각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 '작은집 짓기' 프로젝트였어요. 집짓기 위한 모임은 1월부터 시작했고, 2019년 6월 10일 첫삽을 뜨면서 집짓기가 시작되었어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작은 집짓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건축비는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최대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개인이 아닌 협동하는 방식으로 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집짓기를

통해 개인의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나는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무기력했어요. 어떤 일이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등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니까, 등급을 매기고, 틀린거 말하면 혼날까 봐 두려웠죠. 주변에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은 더 심해요. 살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집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집을 짓고 뼈대가 올라가니 너무 뿌듯했어요. 재밌는데 힘들었어요. 12명이 집짓기를 시작해서 8명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5명이 남아서 마무리 했어요. 중간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실제로는 70일 정도 작업했어요. 집이 6평 짜리인데 청년대안주택이에요.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거가 필요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살기로 했어요.

펀딩(투자)방식으로 돈을 모았는데 2800만원이 모였고, 1200만원을 건축비로 썼어요. 올해 2호 집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 500만원으로도 집을 지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내 삶의 가장 든든한 힘은?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간 적이 없어요. 대학에 진학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계속 경쟁의 연속이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허전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잘 안되서 혼란한 시기를 보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나를 부모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지만 지켜봐 주시니 '이렇게 선택해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딜가도 혼자라는 불안감은 없어요.

##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연애(사랑)를 일찍 한 거(중1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애썼던 것, 마음껏 20대에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 내 삶의 만족도는?

94점이에요. 6점은 나의 불안함이에요. 관계에서의 어려움, 선택할 때의 불안감 그게 좀 힘들어요.

##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친구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래요. 친구들 마음을 잘 못 헤아린 게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끌어가던 게 아쉬워요.



### 목금토(木金土)공방은?

나무(木), 쇠(金), 흙(土)과 같이 자연에서 빌린 자원들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창작공동체, 공익활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산내면 입석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청소년이 살기좋은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켜봐주고 함께해주는 어른이 많은 동네. 나를 버리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마을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힘들긴 해요~

## 우리마을에서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도시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면 언제든 같이 길을 고민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작은 집짓기' 프로젝트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어요.

## 우리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어요. 게임, 공부, 사랑,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든~ 뭐든! 후회 없이 끝을 보는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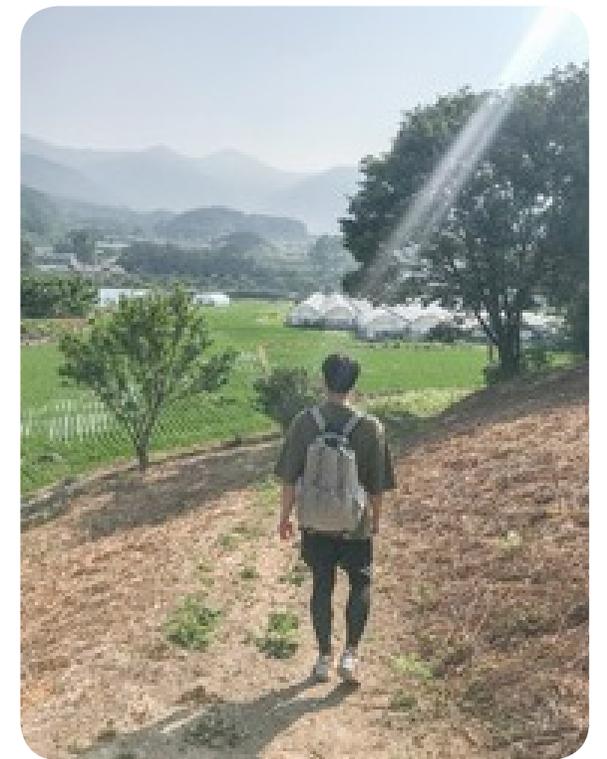
이승현

"저는 '나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지금의 꿈이에요. 저에게 진로는 나의 색깔을 찾는 과정인 것 같네요."

##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난해 생명평화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고 지금은 한생명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매장 '느티나무'에서 판매와 운영, 영업 등의 일을 하고 하루 정도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마을장터 살래장도 같이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매장에선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껏 일을 하니 재미있어요.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윗사람의 의견대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저희 매장이 사장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장지기들이 논의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바로 시도해보고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 마을 분들의 반응도 좋구요.



## 지리산에서 살게 된 이유는?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선배가 창업한 일을 같이 했는데, 시골민박을 취재해서 소개하는 일이었죠. 관광학을 전공했거든요. 민박 주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제철 로컬푸드로 식사를 준비해주는 민박을 찾아, 해외 여행만 좋아하는 젊은 여행자들에게 '국내여행도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고 소개하는 일이었지요. 시스템이 갖춰진 큰 회사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소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창업한 회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고, 처음 출근했을 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쓸모가 없고 해야 할 일은 막막하다 보니 새로 배워야 하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내 존재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놓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주위에 조언도 구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도시에 살면서 일은 재미있었지만, 고립감과 외로움에 힘에 부치던 때가 많았어요. 취재할 땐 시골 분들과 1박2일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진하게 대화하다 보니 시골이 매력 있게 느껴졌고, 시골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어요. 2년 정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시골살이를 꿈꾸면서 펜션에서 숙식하며 일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 직접 시골살이에 부딪혀 봐야겠다 생각하던 중에 하동에서도 6개월 지내봤어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시골살이가 아닌거예요. 시골이여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시골살이를 꿈꾸던 친구가 먼저 지리산 산내로 내려왔고, 저도 이곳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바로 일을 통해 부딪치는 것보다 시골살이를 '더 알고 배워보자'라는 제안을 받아서 인드라망 생명평화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생명평화대학에서는 '어울려 사는 기술'에 관한 공부를 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인데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기준점은?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괜찮은가, 좋은 가치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며 내 마음을 많이 살펴요. 그 중에서도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 내 삶의 전환점은?

어릴 때 이혼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고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선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참고 있던 것들이 뺄 터지

고 마음이 바닥을 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울하고 내 환경에 흔들린다고 해도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려고 노력했고,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집중했어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나니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힘들 때는 책을 봐요. 책을 보다가 내가 했던 생각을 잘 정리해둔 글귀를 만나면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제가 가진 삶의 철학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돼요.

## 진로는 무엇일까요?

'직업'이라는 단어가 파괴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진로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나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저에게 진로는 나의 색깔을 찾는 과정인 것 같네요.

##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선택은?

내 선택이 맞다고 믿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고집부리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것은?

학교생활과 성적, 좋은 대학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가기 바빠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나 경험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워요. 그런데 이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경쟁하는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준다면, 청소년들도 마음의 부담없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보고 해볼 수 있겠죠. 그걸 편안하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할 테고요.



## 우리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를 강하게 어필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꾸준히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함께 하고 도와줄 사람도 생긴다고 믿어요. 또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저도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살아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같이 고민해볼 수 있어요. 포토샵 디자인, 웹자보, 홍보컨텐츠에 관심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구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수익적인 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관심분야를 같이 찾아보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또 가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의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 한생명/느티나무매장은?

한생명은 마을의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예요. 느티나무매장은 한생명의 거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골에서도 생협이 건강한 먹거리와 걱정없이 안전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장이예요. 이곳에서는 생협 물품 판매와 더불어 대나무치솔, 고체치약 등 제로웨이스트 물품 소개, 농산물을 벌크 단위로 들여와 소분 판매하는 등 매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살기 좋은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시선이 너그러운 마을이요. 청년이건 어린이건 청소년들이건 노년이건 서로 너그럽게 바라봐주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평가르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어른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마을이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화롭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먼저겠네요.

## 내 삶의 만족도는?

85점 이상 주고 싶어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도 많으니 그만큼의 점수는 비워두고 싶어서 15점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요. 제가 도시 생활할 당시에 바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이뤘어요. 시골가면 어떻게 살지? 고민했던 것에 답을 조금씩 찾고 있고, 지금은 일도 있고 한정적이지만 지낼 곳도 있으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 기존 있던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Value Putter

김한범

"명왕성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니까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환경에서 여기라도 '실패를 허용하는 공간' 이었으면 합니다."



##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산청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에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공간의 운영자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이용할 때 조정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해 보고 싶은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명왕성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니까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환경에서 여기라도 '실패를 허용하는 공간' 이었으면 합니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어려움은?

청소년기에 한쪽으로만 강요받는 것이 참 싫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작더라도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내가 있어도 (욕을 섞어가며) 편하게 이야기 하는 걸 볼 때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소년 자치 공간이다 보니 운영을 청소년들이 해 가야 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가장 밀려 있을 때 어려움을 느끼죠.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잘 안될 때 어려움을 느끼죠. 사실 어른들도 잘 안되는 것인데 청소년들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왜 청소년 자치공간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나요?

12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영어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싫어했던 일인데 아이들에게 이유를 붙여서 강요하고 있는 제가 싫었어요. 특히 강제 자율학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형식의 수업을 실험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다시 입시가 목적인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공교육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교육,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세월호를 겪고 나서는 '나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퇴직하고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열고 싶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평등하고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주위에서 학부모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고 청소년이 중심인 공간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방 말이 맞으면 빠른 인정을 하는 게 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바꾸게 되었지요. 시작부터 이 지역 청소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았고, 같이 고민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명왕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2018년 10월에 공간이 완성되었어요. 실제로 아이



들과 만나서 계획한 것은 2018년 2월부터였어요. 뭘 하지? 라는 생각은 정리되어 있어서 방법만 고민하면 되니까 진행이 빨랐던 것 같아요.

##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물음이에요. 이 일이 내 일인가? 하는 확신, 검증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명왕성은 제가 맞는 사람이고, 다른 형태의 명왕성은 다른 사람이 맞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뭘 하고 싶지? 왜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초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결혼이요. 학교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지지해주는 부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문화가 변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쌓여야 변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들고 힘들고 외로울 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서, 이 일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사람이어서 결혼이 가장 잘한 선택인 거 같아요.

## 내 삶의 만족도는?

매일 매일 달라지긴 해요. 평균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살아서 만족스러운데 때로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마음같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다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지'라고 다시 생각해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속상하기도 해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의 만족은 언제나 없다고 생각해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진로는 나아갈 길인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구요. 그래서 자기탐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것 같아요. 진로와 직업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직업은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수단이 되는 것이라 평생직업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사에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구요. 진로가 직업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직업을 얻게 되었을 때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으로 했던 직업군이 사라지거나 얻었던 직업을 잃게 되면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내가 가는 길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유연한 마음으로 준비 할 수 있겠죠.

##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연애하고 싶어요. 내가 청소년일때는 이성교제가 불랑스럽게 느껴지던 때라 해보고 싶지만 못 해봤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선을 넘기에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때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이란?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 마을, 말이 잘 통하는 어른, 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있는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어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곳,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을이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를 충분히 누리고, 즐거움의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전해보고 기대해보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내가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웹툰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글쓰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놀이 만들기, 스토리를 맞춰서 해결해가는 게임 만들기, 사진을 읽고 사진을 통해 말하기, 이런 걸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많이 안하고 똑딱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 우리 마을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기존 어른들의 가치예요. 많은 어른들이 생산적인 삶을 이야기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생산은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이 해 나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프로 스포츠, 게임, 웹툰처럼 우리의 소비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일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어른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암담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소비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해 나가느냐, 그것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던 대로 살아도 살아진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해보면 바뀌는 게 있을걸?' 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싶네요.

### 명왕성이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하마가 경남 산청에 설립한 청소년 자치공간입니다. 청소년 자치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하는 규정 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명왕성에서 청소년들은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편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먹고, 놀고, 쉬고, 이야기하거나 회의, 무언가를 위한 연습,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후에는 다음에 이용할 청소년들을 위해 스스로 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생산활동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꿀알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scpluto.i234.me>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sc.pl](http://www.facebook.com/sc.pl)

# 시골에서의 여유와 자유가 좋다

이일형

"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게 배우고, 때론 자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도 주면서, 관심 분야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 깊이를 더하면 좋겠어요 "



### 지리산 지역에 살게 된 계기는?

서울지역에서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일을 9년정도 했어요. 복잡한 교통과 복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이른 새벽 출근하고 늦은 밤 퇴근하는 일상이었죠. 이런 도시 삶이 지쳐서 틈틈이 시골 생활을 생각했어요. 마침 아내가 나주에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사업'의 문화기획 관련 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겨 이곳에서 시골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나주에서 생활은 너무 만족했지만, 아내가 말 벗이 없어 외로움을 느꼈어요. 일년간 나주에서 달콤한 시골생활을 즐긴 후 지리산 산내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 년 반 정도 생활했어요. 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산내는 우리 부부가 아니어도 이러한 능력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필요한 다른 곳을 찾았고, 지금의 운봉읍 행정리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골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어요.

### 지금 하고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따져보니 마을 관련 사업이에요. 이런 이유로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에 2015년부터 인연을 맺고서 현재 사무국장일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이곳 동편제 마을이 선정되어 4년간 (2015년~2019년) 30억원의 사업 지원금을 받아 공간을 마련했어요. 2019년 여름에 완공한 현대적 게스트하우스 및 식당인 '동편제마을 휴(休)·락(樂)'에서 숙박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주변에 소시지와 산양유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체험 공간도 있어요. 우리 전통 소리인 '동편제'와 관련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이처럼 숙박과 음식, 체험을 중심으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타 지역사람들이 관광보다는 체험을 중심으로 며칠간 머무르면서 쉬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일은 종합 예술과도 같아요.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실시한 다른 지역에 비해 동편제 마을은 큰



규모지만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넓혀가고 우리 실무 담당자들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큰 무리없이 공간이 완성되어 보람을 느껴요.

결국 개인의 욕심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일을 하면 신뢰가 쌓여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진로'는 종합적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선택을 해야하죠. 지금 세상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 고정된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진로 중 결혼은 크고 신중하면서도 어려운 선택이에요. 같이 살아야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서로 좋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선택을 해야죠. 즉, 서로 어려운 상황에도 견딜 힘이 있을 때 결혼하면 좋겠어요. 또한 사는 지역도 도시만 고집하기 보다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친밀한 친구 몇 명과 함께 내려와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로에 있어 청소년들이 농촌에 가치를 높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없이 살아도 먹거리 없이는 못산다."라는 말처럼 농촌은 삶의 근간이에요.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살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 지역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은 것은?

당장은 청소년을 만난다면 마을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동편제 마을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체험형 농촌마을로써 방향이나 계획정도를 나눌 수 있어요.

가족과 일본 여행을 간 3일 동안 '도쿄토이뮤지엄'에서만 놀았어요. 폐교를 이용하여 마련한 이곳은 나무로 많은 장난감과 시설, 작품을 만들어 놓은 체험공간이에요. 남원에도 목수가 많아요. 장기 프로젝트로 이분들과 청소년을 결합하여 이 근처에 폐교를 이용하여 나무를 소재로한 놀이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나무 놀이감을 갖춘 공간이 있다면,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활용할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공간을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계획하여 만들고 싶어요.

### 내가 만약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억눌린 삶이 답답했어요. 애기 나눌 선생님이나 친구도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대학생 시절은 행복했어요. 대학 친구와 여름에 강릉에서 동해까지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엄청난 비로 중간에 포기했지만, 그 경험은 강렬했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볼려고 시도했다는 게 이후 삶에 큰 힘이 되었어요.

청소년기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게 배우고, 때론 자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도 주면서...

관심 분야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 깊이를 더하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지역(동네,마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함께 밥을 해먹는 마을이 있지만, 예전만 못해요. 이곳 동편제 마을도 따로 점심을 먹거나 식당에서 사먹지 함께 지어 먹지 않아요. 농사일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야 했던 많은 것들을 기계가 해결해요. 사람보다 기계의 소유가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어요. 편리하지만 정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힘든 일을 같이하며 느끼는 사람 간의 끈끈함이 약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공동체적 관계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행정마을에는 본받고 싶은 어른이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아침이면 자기 트랙터로 동네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마을 주민 세대간 갈등도 원만하게 풀어주시구요.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지혜롭고 따뜻하게 품을 열어주는 어른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 좋겠어요.

### 선택기준과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돈보다는 의미있는 일을 선택해 왔어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일을 3년정도 했어요. 이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생활협동조합'일은 친환경이라는 의미를 두고 선택했어요. 지금 농촌생활은 농촌에 젊은이로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선택했어요. 선택기준에서 돈을 제외하고 '의미'를 두고 여러 선택을 했어요.

시골에 내려온 일이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이곳 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돈에 얽매어 있는 삶을 사는것도 아니에요. 눈만 뜨면 산이 있고, 차량도 적도, 가까이 만날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삶의 만족도는 90점 정도로 높아요.



### 동편제마을은?

동편제마을은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만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로 아름다운 숙박시설(휴)와 문화복합시설(식당,워크숍)을 갖춘마을입니다. 동편제 소리문화를 살리며 식문화는 흑돈버크셔k로 요리한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육가공(발효햄, 소세지) 그리고 산양유와 요구르트, 치즈가 있는 마을입니다.

# 지리산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정영학

"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



### 지리산 지역에 살게 된 계기는?

동물을 키우고 싶고, 남들이 안하는 일을 하고자 대학에서 축산학과를 선택했어요. 2000년 초 국가에 원유(우유)파동 상황을 보면서 젖소만 키우기보다 유가공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대학원에서 축산가공 관련 공부도 했어요. 창업하여 유가공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5년정도 유가공 분야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연구개발, 품질 및 생산관리 등 경험을 쌓았어요. [조화로운 삶]의 저자인 헨리와 스콧 니어링 부부처럼 우리 부부도 농촌에서 소박한 삶을 꿈꿔 왔어요. 부모님께서 아영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계셔서 지리산 지역에 2010년도에 창업했어요.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 가산마을에 주로 젖 생산용 산양과 전촌마을에 체험용 산양을 기르고 있어요. 산양을 기반으로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위해 산양유 생산, 가공, 유통 및 교육(체험)까지를 아우르는 6차산업을 실천하는 '희망씨앗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생산하고 가공한 제품을 고객이 만족할 때 보람이 있어요. 또한 이 일로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어 좋아요. 우리는 부부가 역할을 나누어 함께 일을 해요. 같이 있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 만족하고 있어요.

이곳에 내려올 때 소박한 규모로 농장을 운영할 생각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욕심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서 일에 쫓기고 있어요. 마음과 시간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과 같이 주말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진로는 직업과 많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길 원했어요. 난 동물을 키우는 것이 좋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취미가 아닌 생계를 위한 의무로 다가오니 요즘은 원하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큼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직업을 통해서 내 가족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정도면 좋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일상도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이에요. 다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또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때는 작은 규모로 하고 싶어요.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구례지역에서 치즈를 만들며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우 즐겁게 살아요. 그분 정도 품이 되어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도 만족할 텐데 나는 아직 그 정도 그릇은 못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 지역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농촌에서 농업관련 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미래 농업의 방향을 나눌 수 있고, 구체적으로 6차산업과 관련하여 체험이나 교육, 제품 생산의 트렌드 등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진로 분야에 관심도 있어 유가공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는 실습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 내가 만약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가장 아쉬운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땐 하고싶은 것도 참고 공부만 한 모범생이었어요. 당시 이런 생활에 적응하자 별 어려움없이 지냈어요. 오직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욕심내고, 선생님들은 주변 친구들과 경쟁을 부추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눌려 살았어요. 아들도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더 자유를 느끼고 싶어요. 때론 일탈(?)도 하고 싶구요. "청소년들이여 부디 진학을 위한 학습이 아닌 자유를 즐겨라"

### 삶의 만족도?

약 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이 점수는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채우지 못한 20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예요. 가족과 길게 여행도 다니고 싶지만, 동물을 키우려면 매일 있어야하기에 시간내기가 어려워요. 나는 아들을 무척 사랑해요. 그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아쉬워요.

### 선택기준은?

세부적인 선택을 할 경우 본질적인 질문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 때 왜 이걸 만들까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돈보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요. 사실 이곳에 내려온 목적은 나이드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일을 하다보면 가끔은 원래 목적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럴때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보면 본래 의도를 생각하며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대학생 때 어떻게 살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때 공부와 직업 중 어느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대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해보았으나 너무 힘들어 유가공 관련 직장을 선택했어요. 이처럼 이런 저런 고민과 시도 속에서 삶의 기준인 나만의 가치관이 세워진 듯 합니다.



 **희망씨앗농장은?**  
 행복한 산양들과 지리산 희망농부 가족이 함께 산양유 요구르트, 치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물과 교감을 나눌수 있는 체험교육농장입니다.

# 오늘도 행복한 방송댄스샘

박명희

"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삶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

## 어떻게 댄스샘이 되었나요?

댄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였어요. 28살에 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재미있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나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던 남편의 누나를 만난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품 가게에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어요. 메이크업도 배우고 돈도 잘 벌고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4년정도 일을 했는데 하다보니 원치않는 사람을 만나고 경쟁을 통해 영업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댄스를 가르친지 20년째 되어가는데 지금도 신나고 즐거워요.

## 지리산에서 살게된 이유는?

진해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했어요. 남편이 귀촌을 하고 싶어했어요. 남편 지인이 아영이 고향이라 소개해 줘서 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좋아서 왔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오미자 농사를 짓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은 방송댄스예요.

## 청소년기에 나의 꿈은?

어릴 때 꿈은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꿈을 꺾야 한다는 생각은 중학교때 접었어요. 꿈을 꾸면 부모님을 놀라야 하니까 가정형편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요. 대학진학도 포기했어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거~ 내가 하면서 행복한 게 진로같아요.

## 나는 청소년들과 이런걸로 만날 수 있어요.

방송댄스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댄스쪽으로 진로를 잡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즐기면서 해야하지 목적을 갖고 하면 지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댄스를 하는 친구들에게 유연성이나 근력운동같은 기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본이 안되면 한계가 금방 오게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동작을 봐줄 수도 있지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친구가 돼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눠줄 어른을 만나면 좋았을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주고 싶고요.

##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결혼이요~ 남편이 나의 가장 소중한 멘토거든요. 댄스를 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배움이 필요한건지 스펙이 필요한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보다 잘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 내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준다면?

100점이에요. 나의 인생은 행복한 거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나는 도시에서 댄스 학원을 하면서도 행복했는데 남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리산에 와서 남편은 행복한데 나는 6개월 쉬었는데 그게 힘들긴 했어요. 다시 여기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댄스를 가르치는 일을 하니깐 너무 행복하죠.



### 어떤 마을이 행복한 마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행복한 마을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 때는 밤11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리산에 내려와서는 온 가족이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좋았어요. 여기서 온 가족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이 없는 것보다 적당히 돈을 벌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지리산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삶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 우리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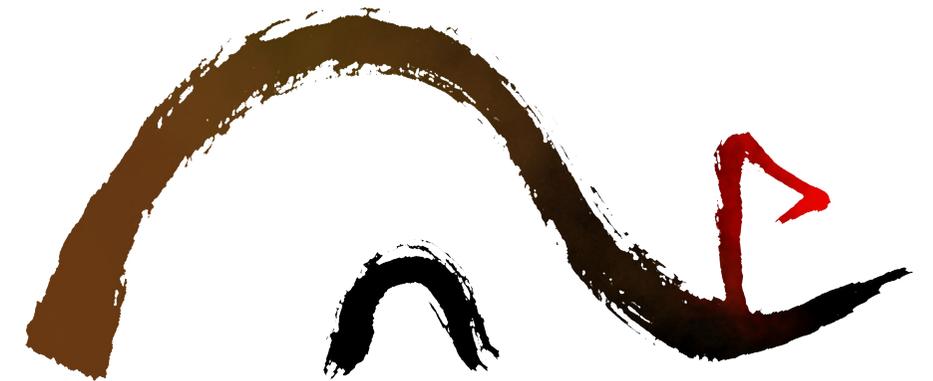
나이에 맞게끔 인생을 즐겨라.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항상 누구든지 기회는 열려있지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니까요. 결혼하고도 다시 시작한 나처럼~ 그런데 늦은 만큼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늦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만큼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꼭 해야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작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난뒤에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윤석우

"진로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길게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 보고 싶은 것,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만나 보고 싶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삶에 대한 고민으로 건축을 하는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입시 공부만 했습니다. 진로라는 것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요. 대학을 선택할 때 기술직, 실기 이런 쪽이 좋겠다 싶어서 건축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일반적으로 찾게 되는 취업을 위한 직장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 할 때쯤 문득, '난 무엇을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좀 더 학교에 남아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도교수님을 찾게 되었지요. 그 교수님이 생태건축을 공부하고 계셨기에 그때부터 생태건축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곳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불빛 하나 없는 계곡을 따라 한 시간 걸어야 도착하는 산골, 생태건축을 실천하신다는 흙집 짓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 때, 자연에서 흙과 나무를 만지고, 흙집을 지으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지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남들은 졸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2학기, 저는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산으로 다시 돌아가 10개월 정도 흙을 만지며 자연에서 보냈습니다. 그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내디딘 첫발이었습니다.

## 지금 하는 일은 건축과 농사입니다.

건축과 농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사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에 은퇴하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아버지께서 경험이 있으신 농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었기에, 한편으론 안정적으로 자립해야 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우리가족에게 어울리는 농사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포도농사를 선택하게 되었지요. 현재는 포도밭에서 닭도 키우고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사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나랑 어울리는 삶을 찾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가지의 정해진 삶이 아닌, 어쩌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 지리산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국을 다녀봤어요. 그런 와중에 한 가족이 아영면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함께 정착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

해 겨울에 아영에 있는 15개 마을을 방문해서 살 곳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아영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7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정말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자연환경 아래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젊은 에너지가 많은 지역이기에 더욱 좋습니다.

##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이 제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무와 흙을 다루는 좋아하는 건축을 만났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고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다보니 어느덧 자연스레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 유쾌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만족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 내 삶의 만족도는?

90점요. 2% 부족한 매우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 에너지를 주변 사람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 진로란 무엇일까요?

진로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길게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 보고 싶은 것,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만나보고 싶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찾을까 보다는 어떤 진로를 찾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진로를 찾

고, 그 진로(꿈)을 향해 노력하고, 구체화시켜 직업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유롭게 논다는 것은 실재론 원하는 것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고, 경험 해보고, 내 꿈을 찾아 갔더라면 좀 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 나는 우리 마을 청소년들과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건축에 대한 답사도 같이 갈 수 있고요. 특히, 흙과 나무를 이용한 건축요. 시간이 된다면 자연물을 이용한 건축캠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부이기도 하니, 10월~2월 농한기에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시골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네요.

## 청소년이 살기에 좋은 마을은?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이 있는 지역(마을)이면 좋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웃으며 다가가갈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가까운 인근에 형성된 지역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곳에서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지기를 상상해 봅니다.

#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 전제비

"우리 마을이 청소년이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다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 나를 소개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전제비입니다. 서울에서 낳고 자랐구요.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년기에는 안정된 삶,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름이 일단 평범하지 못해요. 이름이 특이해서 평범함을 더 꿈꿨던 거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단지 일본가수 『아무로 나미에』가 좋아서 그 사람의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아빠가 대학에 안가는 돈으로 학비는 대주셨는데 생활비는 안주셔서 일본에서 신문배달을 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일본은 학비가 너무 비싸서 다시 한국에 왔죠. 할 줄 아는 건 일본어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21살에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명품관에서 7년을 일하면서 정직원이 되었어요. 잘하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참고 계속하면 점장도 될수 있겠는데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갑갑해서 그만두고 사진스튜디오에 찾아가서 보조일을 3년간랑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잘 못하는 일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랑 너무 다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포토샵 기술을 열심히 익혔어요. 그러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노력만으로도 안되고 재능이나 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에게 이론적으로 체력적으로 밀리기도 했어요. 밤을 새고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과도 시간도 못보내는게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잘하는 일을 다시 했어요. 성형외과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성형상담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성형수술이 잘못되는 사람을 보고 평생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잘하던 일인데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이사를 와서 카페 제비를 열었어요.

### 지리산으로 이사온 이유는?

서울에서는 돈을 벌어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갚는게 끝인거예요. 아이도 하나 낳거나 못낳거나 했을거예요. 그렇게 직장에 묶여 살아야 하는게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지리산을 추천해줘서 이사오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이사와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서울에 살았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울면서 다녔겠죠. 돈을 확실히 그 전보다 못벌지는 않아요. 조금 벌면 조금 쓰면 되고, 버는 거랑 쓰는 거랑 크게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아요. 남편이 카페가 꿈이었는데 서울에선 이룰수 없는 꿈을 여기서 이루었죠. 저는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서 둘다 꿈을 이룬 셈이에요.

### 우리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도전을 했고 실패를 했고 다시 도전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실패가 두렵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가치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숙제고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생겼으면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꼭 필요한 전공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이나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곳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던 것이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되요. 길은 정말 많이 있고 꼭 내가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직업과 모르는 일들을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청소년기에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저는 자랄 때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았어요. 사랑에 관해서 상담해 주거나, 경험을 나누어 주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은 '비슷한 수준에 사람을 만나서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빠가 '너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아'라는 말을 했을 때 섭섭했었는데 그 말이야 말로 힘이 되고 좋은 말이었던 같아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이제는 돈보다 행복지수가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로선택의 기준일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서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누구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 인생에서 잘한 선택은?

일본 갔던 거. 남편 만난 거. 아기 낳은 거, 지리산 내려온 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모든 것을 제가 다 선택을 했고 그것을 집에서 잘 믿어주셨어요. 안돼도 다시 하면 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간섭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 내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준다면?

내 삶의 만족도는 80점이에요. 얼마 전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취소되어서 조금 속상하구요. 집이 조금 마음에 안드는 거 그런거 빼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집보다는 아이들하고 여행다니는 게 더 좋아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여름에는 매일 계곡을 갈 수 있어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란?

청소년이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적으면 아이들이 위축되기 쉽잖아요. 선택권을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나 어른들을 위해서나 지리산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우고 싶은 것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 나는 청소년들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해봤던 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안가고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나 여행을 갔던 경험, 사진찍기, 프랑스 자수, 바리스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친다기 보다는 같이 동아리 활동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나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았을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동그란 원처럼 살아가는 아영의 원불교 청계교당

최광현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

### 나를 소개합니다.

아영 청계원광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불교청계교당 교무 최광현(법명) 입니다.

성직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은 청소년기에 겪은 죽음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중 3때 아주 친한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원불교 성직자 교무가 되기로 결정하고 계룡산에서 스승을 모시고 일상이 공부고 공부가 일상인 삶을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직자(교무)가 되었지요. 원불교 성직자가 되려면 원불교학과를 나와야 해요.

###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

원불교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배워요. 예전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부족했어요. 원광어린이집이 그래서 생겨났지요. 원광이라는 뜻은 일원의 광명 곧 진리의 광명이며 세상에 두루 비치는 빛이라는 뜻이지요. 쉽게 말하면 '동그란 빛' 모나지 않고 세상과 이웃과 자연과 환경 등과 부딪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함께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물질이나 사람도 둥글둥글하게 가야해요. 동그란 원은 서로 맞물리면서 갈수 있어요.

###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영에는 학원이 없고, 아이들은 인근지역인 인월로 학원을 가고, 부모님들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랑



방 개념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7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력을 했고 올해 2020년도에 드디어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운봉, 인월, 아영, 산내를 어우를 수 있는 정신적인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지역의 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진로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경쟁상대로 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놀이, 체험,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은?

청소년들은 지켜봐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격려해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조금 늦는 것은 인생에서 큰 일이 아니지요. 경쟁에서 한 사람이 일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일등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 생각해요.

##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과 아쉬운 점은?

지금 하고 있는 성직을 선택한 것이고, 아쉬운 것은 많은 여행을 못 가본 거예요. 결혼하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생각했지만 실천을 못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내안에 있는 것도 깨뜨리고, 다른 삶을 보는 경험을 조금 더 못해 본 것이 가장 아쉬워요.

## 내 삶을 점수로 준다면?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80점이면 될 것 같아요. 혼자 100점은 의미가 없구요. 나머지 20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우리 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에요. 화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중심인데 내 마음을 숨겨놓으면 안되잖아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우리 마을은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함께 바꾸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을 함께 바꾸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나눔의 장이 되었을 때 지역이 건강하고 잘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거죠.

# 호기심과 궁금증이 원동력인 전업작가 겸 두아이의 엄마

황애리



"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크레파스가 좋았어요. 크레파스의 색깔, 냄새가 다 좋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며 놀았고 물감이나 크레파스 색들이 너무 좋아 얼굴에 바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다른 건 잘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저를 예뻐해 주셨고 반에서는 항상 공부하는 꼴등이지만 미술시간이 되면 제가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화가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에 들어가 보니 미술부 선배들이 다 학원을 다닌 것을 알게 되어서 친구랑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집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학원비도 많이 밀리면서 다녔었는데 단 한번도 학원비 밀려서 기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배우는 것에는 뻔뻔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때 H대학에서 주최하는 사생실기대회에 나갔었는데 대학캠퍼스를 보고 한눈에 반해 실기 준비에 올인 했어요. 당시 H대학교에서는 수능점수보다는 실기비중이 높았거든요. 저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어서 자신감있게 준비해서 턱 하니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1년을 어떻게 다녔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서 매번 등록금과 자취비는 모두 가족, 친척들, 은행학자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결했는데 단 한번도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유가 화가 되는 게 꿈이었고 쪽 작업 하는 게 맞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저의 재산이 되었고 이런 값진 재산이 생긴 것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생긴 것들이어서 가난이 재산의 밑거름이었다고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 전업작가로 내 인생의 전환

남편을 만난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대학원에서 황토흙건축을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건축에 있어서 공간을 분석하며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공간을 구성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친구로 지내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 낳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주위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 지리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지리산에 막상 이사오니 많이 우울했어요. 그런 고민을 친한 선배 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언니가 다시 그림을 그리라며 그림재료를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업작가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여러 작가들이 모여 함께 전시를 여는 '그들의 공간전'에 참여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고 있어요.



###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는 학부모회를 만들게 된 계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마을에 있는 학부모들을 만나서 활동도 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수업에 만나는 아이들,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내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잘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 키우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꿈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아영지역 학부모님들과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바자회도 열고 마을에 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마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진로를 고민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각자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은 있을꺼라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림이 잘하는 것이 되었고 그 그림을 통해서 기초가 되니 해보고 싶은 꿈도 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 저에게 직업 두 가지를 가지게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 전업작가입니다. 그림에 기초가 있으니 앞으로 저는 더 해보고 싶은 것에 꿈을 꿀 수 있겠조 잘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며 해보고 싶은 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 직업을 2~3가지씩 가져 보겠단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수명도 더 길어질 건데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기엔 답답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책을 즐겨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든 기초는 튼튼해야하니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잘 견디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기초를 튼튼하게 하다보니 공부쪽으로는 소홀했거든요. 지금 느끼는 것은 공부기초가 없다보니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데서 오는 부족함, 이론을 공부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구요.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부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요. 젊을 때 해야지 저처럼 나이들어서 공부 하니 몸과 정신이 너무 더딥니다. 기초는 젊었을 때 해야 효과가 좋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 나는 청소년들과 이런 것을 나눌수 있어요.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미술관련 모든 것을 공유 할 수 있어요. 실기, 이론, 진로탐색 등 함께 고민도 하고 싶네요. 또한 미술이라는 영역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사고를 전환하는 재미있는 작업들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은?

항상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선택하고 살아온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별로 후회는 없어요.

## 내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준다면?

60~70점이에요. 욕심쟁이처럼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입니다.

## 청소년이 살기에 좋은 마을이란?

아이들을 믿어주는 어른들이 많은 동네가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에서 많은 배움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자체, 학교, 마을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좋은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빈둥거리며 살지 않는 영원한 '빈둥'카페의 마담

이은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할 때 즐거운 지,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한지 알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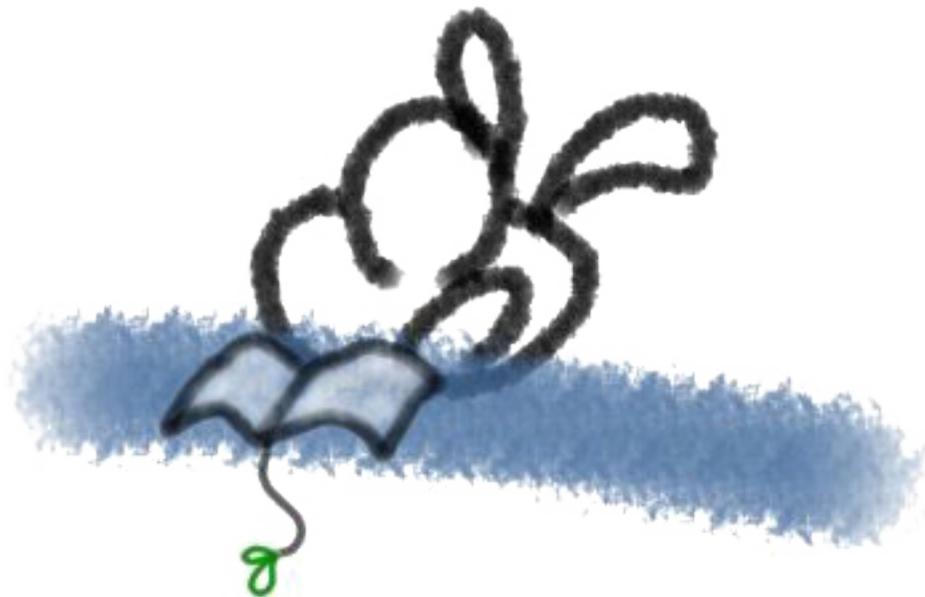
## 지리산 지역에 살게 된 계기는?

'지리산'이라는 지역이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에 살면서 이때쯤 삶의 전환을 해볼 시기라 생각하고, 『남쪽으로 튀어-오쿠다 히데오』라는 소설을 읽고서 막연히 남쪽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또한 우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옮기는 게 편할 거라 판단하여 제주도를 알아보았어요. 그렇지만 그곳 환경은 잠시 머무는 여행 때와는 달리 평생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마땅한 전셋집이 나타나지 않아 포기했어요. 그러다 함양에 사는 친구네 놀러 왔다가 소개 받은 동네와 집이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어요.

## 어떤 일을 해왔나? 나에게 진로의 전환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고민할 때 "너는 감각이 있어 기자 일을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친구 말에 솔깃하여 '우리교육'이라는 교육 전문 잡지사의 기자가 되었어요. 그때 좋은 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하자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청소년, 대안교육 등에 관한 일들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편집, 기획, 글쓰기와 관련된 일들을 즐겼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교사에 대한 기대가 커요. 함양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좋은 선생님들과 협업하고 싶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백전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학부모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역할을 해야만 했고, 열떨결에 학부모회장이 되었어요. 당시 경상남도에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발생하였고, 함양과 경남지역 전체가 시끄러울 때 운영하고 있던 '빈둥'과 함양의 관계가 긴밀해졌어요. 빈둥이 차차 더 넓은 시민사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많은 사람과 만났어요. 이때부터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함양에 이사 와서 공정무역을 취급하면서 뭔가 작당 모의하는 마을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겨울 즈음 '카페 빈둥(이하 '빈둥')'을 오픈했고 5년 반 정도 카페 마담으로서 함양과 사귀다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지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주간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생활 중이에요. '학부모지원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교육청(행정)과 학부모(민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 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 셈이에요. 사실 '빈둥'을 운영하며 다음 단계로 청소년들과 뭔가 해보고 싶었으나, 교육청이라는 행정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로 함양을 거점으로 거창, 산청, 합천, 함양 등 4개 지역 학부모를 지원(현재 산청과 함양 지원)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빈둥'에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같이 노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란?

'진로'는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 '어떤 가치를 두고 살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해요.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학 때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며 이전과 다른 나를 찾다가 춤패 동아리에서 춤을 만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삼 년 동안 열심히 춤을 추고서 밝아지고 가벼워진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지 알면 좋겠어요. 나는 귀가 얇아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좋은 사람들, 배울 것들이 많은 사람들 곁에서 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에 나를 두었어요.

### 지역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나누고) 싶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지?

함양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어요. 처음 '빈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버스 올 때까지 시간이 비거나, 여기가 편안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뭘 사 먹지 않아도 되니 와서 좀 쉬든지 만화를 봐도 된다"고 항상 말했어요. 편안했는지 아이들이 자주 들렀어요. 이곳에서 한동안 놀다가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떠난 아이들도 있고, 영어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도 해요. 군대 간 아이도 가끔 들르기도 해요. 기획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을 살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활동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 무언가 해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년 후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편히 쉬고 맛있는 것을 먹고 떠들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보다 아이들 삶이 바빠요. 지금은 그냥 편히 와서 천 원 할인해주는 연대감을 느끼고, 보드게임을 하고, 쉬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로서 만족해요. '실상사작은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이곳에서 두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이 경력이 도움이 되었는지 타 도시의 어느 공공 청소년 카페에서 2년 일했어요. 얼마 전 만난 18세 홈스쿨러가 "도시 에 가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알바에 진입하기 위한 첫 카페 경력을 빈둥에서 채워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체험하기보다, '카페지기'처럼 실제 이곳을 운영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빈둥'을 찾아 준다면 언제든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원할려나?...ㅎㅎ"

## 내가 만약 다시 청소년이 된다고 상상해보자.

### 1) 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나는 큰 의심 없는 삶을 살았어요. 성적에 따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밀어부치는 고등학교에 가고, 또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어요. 그러지 않고 내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해보는 경험을 이 시기에 해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2) '의미 있는 선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고등학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디를 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선택해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삶의 유형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어야 해요. 세대 간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와 다른 조건, 환경,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부모가 아닌 어른과 친구(또는 멘토)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어른과의 관계랄까.

##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지역 (동네, 마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지만, 젊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다시 올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역이어야 하고 우리 마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 동네는 '괜찮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역의 환경, 생태, 좋은 어른, 역사, 문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이라 생각해요. 마을이 똑바로 서야 '마을교육'도 가능하죠..

##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200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로 다녀온 배낭여행이요. 친구의 조언을 들어 어학연수보다는 배낭여행을 선택했어요. 프랑스 지역을 돌아보았고, 워크 캠프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언어능력으로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얻었어요. 이때 배낭여행은 지금까지 내 삶의 에너지원이예요.

## 지금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는 90점이에요. 환경에 잘 적응하기에 특별히 아쉬운 것은 없어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인데 '일'이나 '활동'을 핑계로 소홀히 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10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에 충실한 편이고, 일 중심적인 인간이에요. 지금에 충실하다보니 옛날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못챙겨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 ☀ 빈둥이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재미난 일들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많은 카페이자 책방이자 놀이터이자 작업장인 공간입니다. 2012년 11월 공정무역 북카페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공정무역 커피와 코코아 등의 음료와 함양 최고의 마카롱도 먹을 수 있어요. 작년부터는 4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카페지기 자원활동을 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마을활력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음료가 1,000원 할인됩니다.

### 빈둥 카페 운영 안내

여는 시간 : 월~토 10:00~21:00, 일 11:00~18:00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1길 3

전화번호 : 010-7260-0221



#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지역자원조사 자료집

발행처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기획 및 정리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편집 도밤

일러스트 밤비, 이선영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jmgong>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806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